

바이오노트, 상장 첫날 1조 클럽 달성...

코스피 시장 성공적 입성!

▶ 동물진단 및 바이오 콘텐츠 시장 글로벌 Top3 도약 시동

바이오 콘텐츠·동물진단 글로벌 선도기업 바이오노트가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2022-12-22> 바이오노트(대표이사 조병기)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클럽을 달성,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바이오노트는 공모가 9,000원 대비 18% 상승한 10,65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로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바이오노트는 2003년 설립된 바이오 콘텐츠·동물진단 전문 기업이다. 고유의 유전자 재조합 항원, 항체 원천 기술, 첨단 대량 자동화 생산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항원, 항체 등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독자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면역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올해 성공적인 분자진단 검사법 출시와 함께 내년 상반기 생화학 검사법 출시 예정으로, 진단검사 검사법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장 이후 바이오노트는 바이오 콘텐츠 및 동물진단에서 글로벌 TOP3 기업으로의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이사는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입성해 기쁘며, 바이오노트를 믿고 투자해 주신 모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TOP3 토탈 진단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전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모든 생명체의 건강을 지키고, 상장사로서의 소명 또한 다하는 신뢰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북하는 조병기 바이오노트 대표이사(사진=바이오노트 제공)